



주 제:	“거룩한 변모”	“사순 제 2 주일” (다해)	2007년 3월 4일
복음 묵상:	루카 9,28 ~-36	창세 15,5-12.17-18	필리 3,17-4,1 또는 3,20-4,1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이 깨고 나서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나서서 “초막 셋을 지어 함께 살자”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하느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혼수상태에 걸린 사람에게 약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영적인 병이 올 때는 약을 꼭 주십니다. 그 약은 바로 “고통이요, 십자가”입니다. 분명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혼수상태”에 걸렸거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조창현신부님)

성가대 소식

1. 이제 부활절이 5 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2. 다음주 3월 11일(일) 오후 연습후 성가대 임원 및 각 파트장님들과 기악담당자들과 30주년 기념 음악회에 관하여 회합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안들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순 특강 및 십자가의 길

사순기간 중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 중 특강이 있겠습니다.

사순 제2주간: 박 테오도라 수녀님

사순 제3주간: 바오로 딸 수녀회

사순 제4주간: 바오로 딸 수녀회

사순 제 5 주간: 황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기도 요청

- 홍아마메우스 수녀님 2/22 부터 3/9 까지 피정중에 제십니다. 피정 중에 주님과 좋은 만남 있으신 후에 돌아 오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의 친정어머님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병문 바오로 형제님 3월 17 일 한국에서 화축을 밝힐 예정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새출발 하는 형제님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이 5월말에 돌아올 예정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안 형제님을 찾아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이 함께하시어 건강히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5. 개인홈피에 화답송과 부활 미사곡이 NWC 파일로 실려있으니,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도 개인이 연습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홈피주소는;입니다. <http://home.comcast.net/~kimjiman/>

6. **알림:** 가족들의 소식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재료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kimjiman@comcast.net)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 가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 버렸다.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분 명상

"큰 기쁨을 준다"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삽니다.
용서와 위로를 먹고 힘을 얻으며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은은한 사랑의 눈빛하나
조용한 격려 한마디
따뜻한 손잡음 한번....
이런 것이 천만 번의 복권 당첨보다,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중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필리 4.1)
"Stand firm in the Lord."